

조사분석기능 강화를



김 상 곤
〈현대정유 업무팀장〉

대 한석유협회가 80년 9월에 설립되었으니, 금년 9월이면 만17년이 된다. 그동안 협회는 정유사간 이해와 우호 증진을 통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오으로써 국내 정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일조해 왔다.

최근 국내 정유산업은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석유사업법은 국내 정유산업의 성장과 세계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추세를 반영하여 석유산업의 효율성제고 및 대외 경쟁력강화를 위한 단계적 석유산업자유화 추진일정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1단계 추진과제로서 유가자유화, 수출입자유화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제가 금년 1월부터 실

시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유가 자유화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석유산업의 제반환경변화는 우리 협회에도 많은 역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협회에 기대하고 싶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첫째, 석유산업 관련 조사분석기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1단계 석유산업자유화 이후 가격정책등 정유사는 보다 많은 자율적 의사결정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많은 사례, 연구논문, 서적 및 정기간행물 등 석유산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입수와 조사분석을 통한 폭넓은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둘째, 정유산업의 현황에 대한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정유사의 정유부문손익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이 폭넓게 국민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자유화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아 보인다. 이제는 제반 정유산업 현황에 대한 소비자 이해의 제고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가격결정 체계나 가격구조등 업계의 현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및 언론의 이해제고를 위해 보다 더 세심하게 알려줌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석유관련 정부정책 수립시 정유업계의 실상과 건의사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적기에 전달되어져야 한다. 이는 99년 정유산업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정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정유산업의 현황을 잘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업계내 현안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회원사로부터 의견수렴과 이견조정기능의 활성화를 희망한다. 사실이 부분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정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건한 신념이 있다면 그렇게도 난공불락의 어려운 면면은 아닐성 싶다.

끝으로 자율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축년 한해에도 정유업계의 대변자로서 국내 석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여 주기 바라며 글을 맺는다. ☪